

【국어】

2020학년도 1학기 10단원 정리

청명초등학교 5학년 반 번

이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

잘못 뽑은 반장

(앞 이야기)

이야기의 주인공 '이로운'은 말썽 많고 숙제도 잘 안 해 오는 아이로 몸이 불편한 누나 이루리를 부끄러워한다. 2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뽑혔으나, 처음에는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 1학기 반장 황제하가 반장 도우미를 한다. 하지만 이로운은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황제하는 이를 시기한다. 그려던 어느 날 황제하가 멋진 모습만 보여 주려고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을 이로운이 밝히고, 황제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실망한 눈빛에 충격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반장으로서 한마당 친지의 합창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이로운은 황제하네 집을 찾아간다.

1. 이 글에 나타난 2학기 반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 ① 2학기 반장의 이름은 해로운이다.
- ② 처음에 뽑혔을 때 친구들이 좋아했다.
- ③ 누나를 귀찮아 하지 않고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 ④ 반장으로 뽑았을 때 '해로운', '잘못 뽑은 반장'으로 놀림받았다.
- ⑤ 숙제를 잘 해오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솔직하고 거짓이 없다.

2. 관계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 | | | |
|-----|---|--------------------------------|
| 이로운 | • |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로운이 누나가 좋아한다. |
| 이루리 | • | 해로운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친구를 따뜻하게 대한다. |
| 황제하 | • | 로운이를 사랑스러워하지만 장애가 있다. |
| 명찬이 | • | 로운이와 좋지 않은 관계였으나 서로 이해하고 인정한다. |
| 반장 | • | |

3.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의 흐름에서 꼭 있어야 할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 ① 황제하
- ② 이루리
- ③ 명찬이 반장
- ④ 선생님
- ⑤ 아버지

4. 로운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7)

대화가 필요해

"상은아, 오늘도 비 온다. 체육은 할 수 있을까?"

인국이가 교실에 들어서며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중략)

인국이는 4학년이 끝나 갈 즈음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다. 인국이와 5학년이 되어 이렇게 친해진 건 며칠째 봄비가 내리던 날 체육 시간 때문이었다.

그날 우리 반 친구들은 비 때문에 못 할 줄 알았던 체육을 체육관에서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난 평소에 못 마땅하게 여겼던 인국이랑 같은 편을 하고, 체육을 잘하는 민영이와 다른 편을 하여 기분이 별로였다.(중략)

"야 너 뭐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못 막냐?"

내가 마음속에 억눌렸던 말을 꺼내며 인국이에게 달려들었다.

"너도 똑바로 못 막았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화내는 건데?"

그 순간 '나한테만'이라는 인국이 말에 난 뜨끔했지만 선생님께서 우릴 말리실 때까지 말싸움을 계속 이어갔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나와 인국이를 상담실로 부르셨다. (중략)

5.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장소는 어떻게 변했나요?

2교시	3교시	3교시
쉬는시간	-> 체육시간	-> 쉬는시간

6. 이야기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끼리 선을 이으시오.

- | | | |
|------|---|-----------------------|
| 이야기 | • | 상은이와 인국이가 싸우는 부분 |
| 시작단계 | • | 인국이와 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부분 |
| 사건시작 | • | |
| 단계 | • | |
| 갈등고조 | • | 체육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 |
| 단계 | • | |
| 사건해결 | • |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 |
| 단계 | • | |

7. 아래는 글쓴이와 친구의 대화내용이다. 보기에서 () 안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 친구들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보기) 이해 차례 사건 해결 생각

(친구) 제목을 <대화가 필요해>라고 지은 까닭은 뭐니?

(글쓴이) 말 그대로야.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내 ()을/를 담았어

(친구) 그랬구나. 그런데 일어난 일의 ()이/가 바뀐 부분이 있어.

(글쓴이) 응. 그래야 처음 시작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 필요하다면 ()을/를 지어낼 수도 있어서 조금 지어서 썼어.

(친구) 재미있었어. 인국이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지?

(글쓴이) 맞아. 알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네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써 볼래?

(친구) 한번 그래 볼까? 마지막 부분에는 사건을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야 하는데.....

(글쓴이) 응. 상은이가 인국이랑 대화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내용이 잘 나타나면 좋겠어.

8.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꾸며 쓴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읽고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쓴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있었던 일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와 다르다.

()는 나 혼자 보고 간직하기 위하여 쓴 글로 그 날 동안에 있었던 일을 쓴 글이다.

()

9.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 생각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쓴다.
- ②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지 생각하며 쓴다.
- ③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만 써야 한다.
- ④ 시간의 흐름을 마음대로 바꿔쓰면 안된다.
- ⑤ 주제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쓴다.

10. 자신이 국어 교과서 322-323쪽에 쓴 이야기의 주제와 제목을 써 보세요.

(1)주제:()

(2)제목:()